

Lesson 4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영광을 볼 수 있다.

본문: 요한복은 1:14-18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4)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5)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14절 끝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 그리고 15절에서 가로적인 의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 하고 있다. 15절에서 강조 한 것은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세례요한은 육신적으로 자신이 먼저 왔지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그가 먼저 계셨을 뿐 아니라 그의 사역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요한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이며 그보다 뛰어난 사역이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영광이 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1. 충만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

14절은 15절을 뛰어 넘어 16절과 연결시킨다. ASV번역을 보면 14절과 16절을 연결하면서 and가 아니라 for라는 말로 연결시킨다. 14절과 16절을 연결 시켜 읽으면 “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16절) 왜냐하면 (for) 그의 충만한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자연인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은혜가 주어져야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 하셨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요11:40)”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육체적인 사실로서 보았다. 그러나 다만 몇 사람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이 은혜의 사역이다.

이 은혜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사역이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라.” 하

나눔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때, 그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영광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파고 들어온다. 우리 예수님으로 부터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레이저 광선과 같이 우리의 삶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온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으로 부터 오는 은혜가 임할 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레이저 광선 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속에 깊이 파고 들어온다.** 그리할 때 그 영광의 빛은 우리의 죄와 질병을 소멸 시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 안에 있는 낙심, 좌절, 원망,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불 태워 버린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총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를 새 새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게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2. 모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

17절에서도 16절에서 시작한 말과 같이 왜냐하면 으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야 한다. “그의 총만한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라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부터 왔기 때문이다.”

왜 모세인가?

왜 요한은 여기에서 모세와 율법을 언급 하는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 문맥을 벗어나면 안 된다. 요한이 여기 문맥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요한은 은혜의 총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여기서 모세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부은 가장 유명한 구약의 인물이다.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그는 모세이었을 것이다. 출 33:11에서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곤 했다.” 그러나 모세에게서는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 하는 것으로 만족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이상을 원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출 33:13) 그는 더 나아가 중재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

출 33: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등만 보여 주시고 그의 얼굴은 보여 주시지 않았다(출 33:23).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여 율법을 주었다. 모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율법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 요한이 16-17절에서 그리스도와 모세를 대조 시킨 것은 율법이 은혜의 선물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율법도 은혜의 선물이다. 16절을 영어성경을 직역하면 그의 총만한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은혜위에 온 은혜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언급한 은

혜는 모세에게 준 은혜이다. 그러나 은혜위에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의미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빛의 거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다.

모세와의 대조는 18절에서도 계속 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율법을 중보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영어로는 무어라고 했는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He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라고 했다. 모세는 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들렸다(3:14).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만사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 온 떡(6:32)이었다. 모세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 했지만(5:45),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었다.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이다. 모세는 은혜를 가리킬 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은혜를 실행 하는 사람이다.

3.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모세까지도 못 보았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을 보게 해 준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무리 단순한 신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44-45절에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그를 본 자다.”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레이저 광선과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영혼 속이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 될 때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문자로 쓰여진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혜로 역사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 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어둔 눈을 밝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물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죄를 이기며 믿지 않는 자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돈 많고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가진 자들이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목사는 이런 자랑을 한다고 한다. 우리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박사가 몇 명이고 범조인이 몇 명이고 교수가 몇 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장관이 몇 명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 자랑이나 하고 민망한 예배를 드린 것보다.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레이저 광선처럼 각 사람의 영혼을 불태울 때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내가 학생 사역을 할 때 모여든 학생들 중에 제수 3수 낙재생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 그들의 비전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니까 공부도 남달리 잘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한다. 내가 한양 대학에서 처음 개척을 할 때 한 형제가 있었다. 그는 시골에서 부잣집 아들로써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그러나 공부를 못해서 재수 3수해서 대학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대학 1학년 때 F학점이 너무 많이 나와 학교를 중단하고 군대를 갔다. 군대를 갔다 와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성경공부를 시작 했다. 1972년 여름 수양회에서 내가 전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믿은 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지 모른다. 한번은 여름철에 예배를 드린데 선풍기 하나 없어 학생들이 힘들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옆 건물 식당에 가서 선풍기를 빌려 달라고 한 것이다. 식당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선풍기를 빌려 달라고 하니 야단만 맞고 돌아왔다. 그의 어리석은 행동이 형제를 위한 헌신으로 생각하면 귀엽게 봐 줄 수 있다. 그는 학생 사역 시작의 개척자로서 헌신하여 캠퍼스개척에 큰 열매를 맺었다. 그후 미국에 있는 간호사와 결혼하여 평신도 선교사로 열심히 일했고 은퇴후에는 인디언 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 한 자들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